



한-베 경제교류 현황 및 전망

kotra

Korea Trade-Investment
Promotion Agency

호치민 무역관

2016. 3. 4

목 차

- 1. 한-베 교역 동향**
- 2. 한-베 투자 동향**
- 3. 2016년 베트남 주요 이슈 및 경제전망**
- 4. 한-베 무역협정 체결동향 및 경제협력 목표**



한-베 교역 동향

베트남 무역 현황 *

연도별 한-베 교역 추이 *

2015년 한-베 교역 특징 *

품목별 한-베 교역 *

한국기업들의 베트남 수출 기여도 *

전체 무역 규모 및 FDI 기업의 비중 지속 증가

- ◆ `15년 수출 전년 동기대비 7.9% 증가(1,621억 달러), 수입은 12.0% 증가(1,656억 달러)
- ◆ FDI 기업 수출 비중 : `11년(49.4%) / `12년(55.9%) / `13년(61.3%) / `14년(62.5%) / `15년(68.2%)
- ◆ FDI 기업 수입 비중 : `11년(45.7%) / `12년(52.7%) / `13년(56.4%) / `14년(57.0%) / `15년(58.7%)

베트남 수출액 추이



베트남 수입액 추이



주요 수출입 대상국

- ◆ 주요 수출국 미국 > 중국 > 일본 > **한국** ⇄ 주요 수입국 중국 > **한국** > 일본 > 대만
- ◆ 최대 수출국 對미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6.9% 증가, **전체 수출액의 20.7%** 차지
- ◆ 최대 수입국 對중국 수입액은 전년동기 대비 13.3% 증가, **전체 수입액의 29.9%** 차지

베트남의 주요 수출국(15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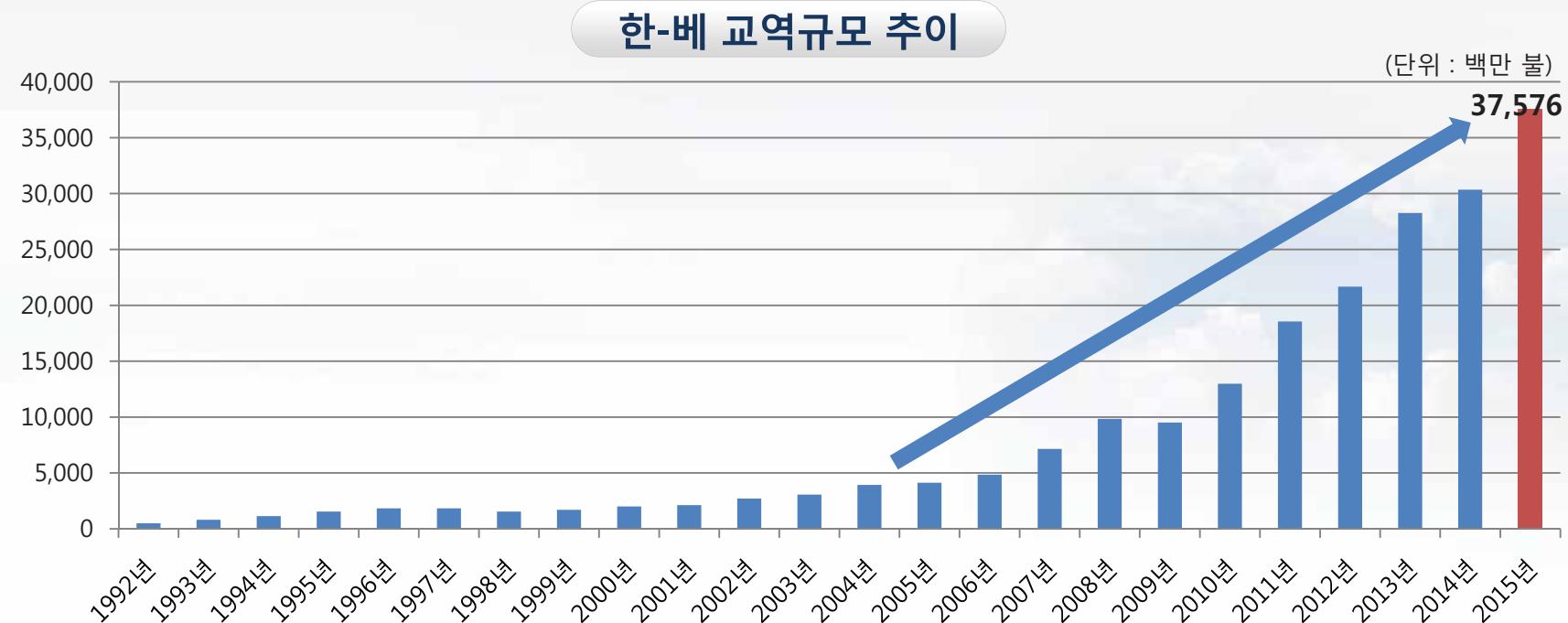
순위	국가명	수출액 (백만 달러)	비중 (%)	전년동기 대비 증가율(%)
1	미국	33,480	20.7	16.9
2	중국	17,141	10.6	14.8
3	일본	14,137	8.7	-3.8
4	한국	8,932	5.5	25.0
5	홍콩	6,965	4.3	33.9
6	아랍에미리트	5,,695	3.3	23
7	독일	5,705	3.5	10.2
8	네덜란드	4,762	2.7	26.5
9	영국	4,648	2.7	27.4
10	말레이시아	3,583	2.4	8.7

베트남의 주요 수입국(15년)

순위	국가명	수입액 (백만 달러)	비중 (%)	전년동기 대비 증가율(%)
1	중국	49,527	29.9	13.3
2	한국	27,614	16.7	26.9
3	일본	14,367	8.7	11.1
4	대만	10,993	6.6	-0.8
5	태국	8,284	5.0	16.8
6	미국	7,795	4.5	23.8
7	싱가포르	6,038	4.1	11.7
8	말레이시아	4,200	2.7	0.1
9	독일	3,212	1.9	22.6
10	인도네시아	2,743	1.7	10.0

'92년 한-베트남 국교수립 아래 교역규모 70배 이상 성장

- ◆ 교역 규모 추이 : 5억 불('92) → 376억 불('15)
- ◆ '15년 베트남은 한국의 **아세안 제 1위 교역 대상국**
 - ☞ '15년 아세안 교역규모 순위(억 불) : ①**베트남(376)**, ②싱가포르(230), ③인니(16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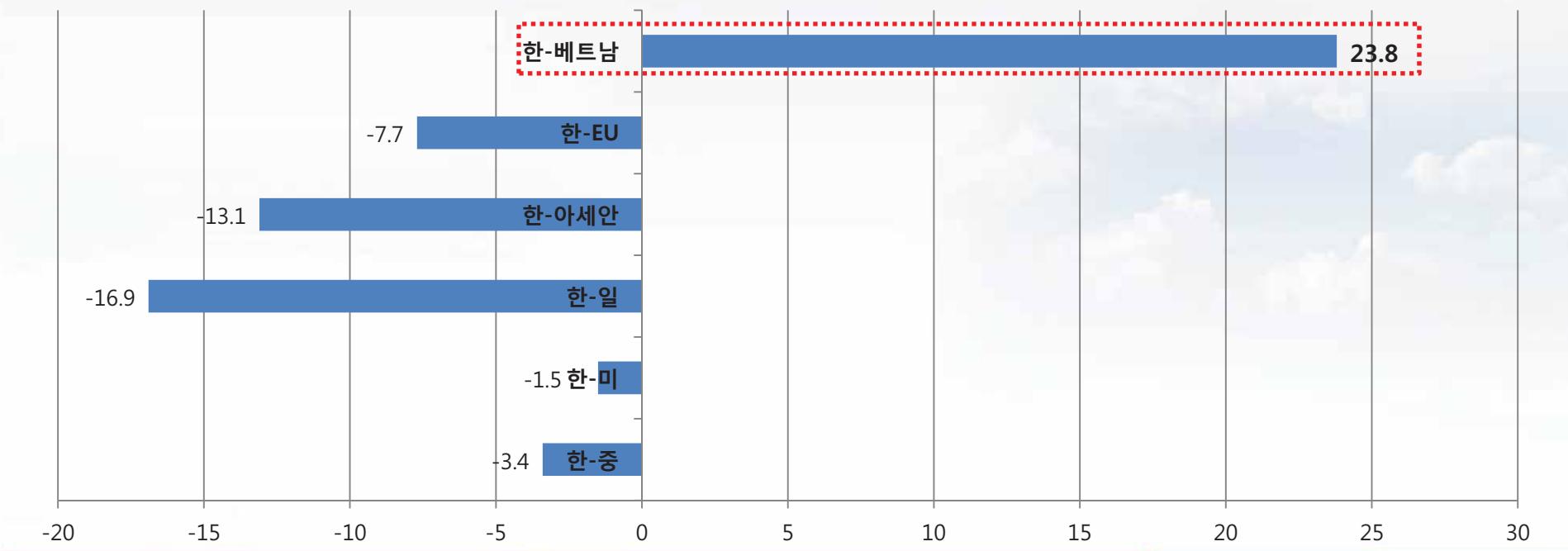


자료원 :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

'15년 한-베 교역은 나흘로 고성장

- ◆ '15년 세계경기 둔화, 유가하락 등 전 세계 교역 여건 악화
 - ☞ 對중국(-3.4%), 미국(-1.5%), 일본(-16.9%), 아세안(-13.1%), EU(-7.7%) 교역 부진
- ◆ 對베 교역은 현지 생산기지로의 수출 및 역수입 증가로 **두자릿수 증가율 기록(23.8%)**

주요 지역별 2015년 교역증감율(%)



주로 원자재·자본재 수출 / 휴대폰, 의류·섬유제품 수입

- ◆ 對 베트남 수출 품목은 현지 투자진출기업의 생산 관련 부품·소재 위주
 - ☞ 반도체, 기구부품,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, 합성수지, 편직물 등
- ◆ 수입은 자원 및 섬유·신발 등 베트남 주요 생산 제품 및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역수입 위주
 - ☞ 의류, 무선통신기기, 신발, 컴퓨터, 목재류 등

한-베트남 품목별 교역현황(2015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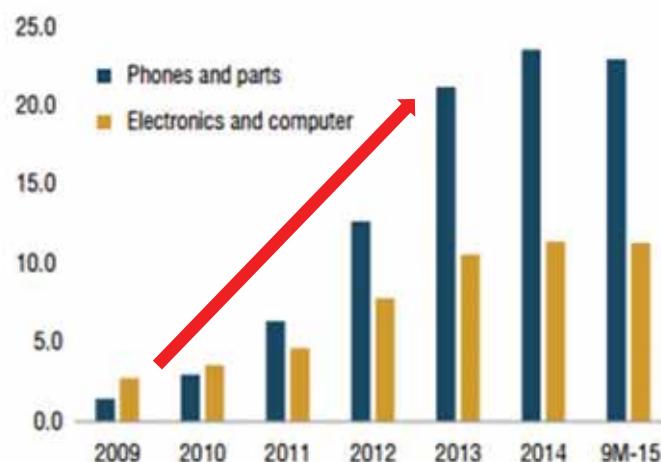
(단위 : 백만불, %, MTI 3단위)

순위	한→베			베→한		
	품목명	금액	증감율	품목명	금액	증감율
1	무선통신기기	4,249	87.1	의류	2,221	2.8
2	반도체	2,871	2.9	무선통신기기	1,471	403.4
3	기구부품	1,233	31.7	신발	527	4.0
4	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	1,266	85.1	컴퓨터	400	130.1
5	합성수지	1,110	-6.5	목재류	348	-0.7
	총계	27,771	24.2	총계	9,805	22.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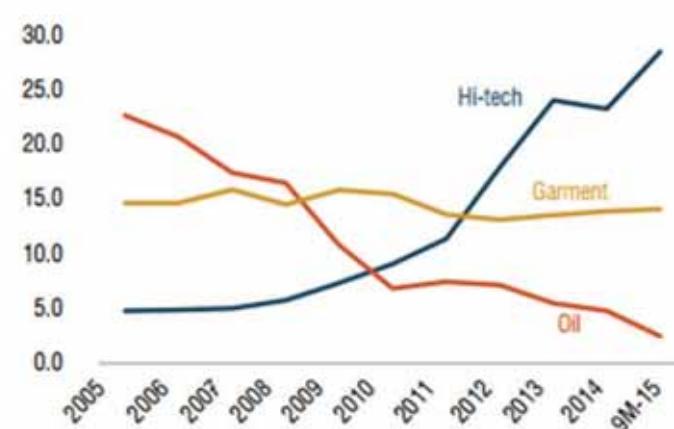
베트남 수출산업 고도화 기여

- ◆ 2013년 이후 베트남 최대 수출품목은 무선통신기기로
베트남 수출산업 고도화, 하이테크 제품 수출비중 확대 주도
- ◆ 베트남 효자 수출 품목인 의류, 신발 역시 한국 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 수행 중

베트남 하이테크 품목 수출 추이



베트남 품목별 수출 비중 추이



자료원 : 월드뱅크 Taking Stock보고서('15.12월)

자료원 : 월드뱅크 Taking Stock보고서('15.12월)

한-베 투자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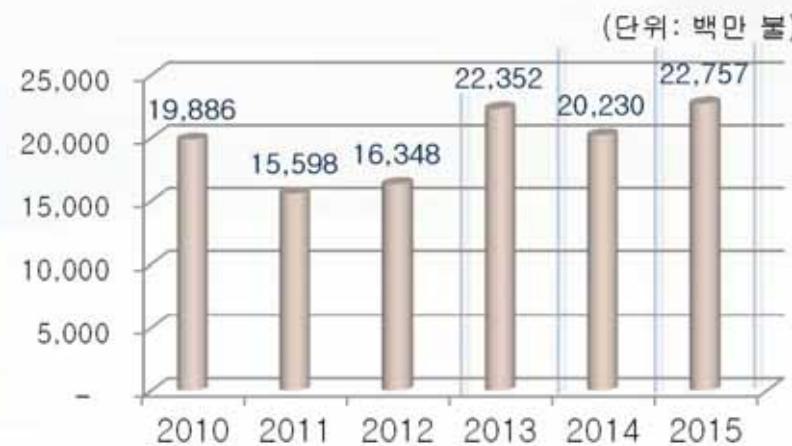
베트남 전체 FDI 현황 *

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현황 *

FDI 유치규모 및 산업별 비중

- ◆ '88년 ~ '15년 12월 누계 기준 전체 외국인투자는 **19,929건, 2,790억 달러**
- ◆ '15년 당년도 외국인 직접투자는 2,827건, 227억 달러 유치
 - ☞ 전년대비 외투 증가율 : ('13년) 36.7% ('14년) -10.2% ('15년) 12.5%
- ◆ 제조업 투자 비중이 가장 높으나, 감소하는 추세(일본, 대만, 싱가포르 등 투자감소 요인)
 - ☞ FDI 중 제조업 투자 비중 : ('13년) 77% ('14년) 72% ('15년) 67%

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(연도별)



*자료원 : 베트남 통계청, 기획투자부

산업별 외국인 투자 동향('15년)



전체 누계 및 2015년 기준 **한국**은 베트남 FDI 1위 국가

☞ 전체 누계(건/억 달러) : **한국[4,944/449]**, 일본(2,883/384), 싱가포르(1,526/347), 대만(2,475/306)

☞ '15년 투자 비중 : **한국 29.6%**, 말레이시아 10.9%, 일본 8.1%, 사모아제도 6.1%, 영국 5.6%, 싱가포르

5.4 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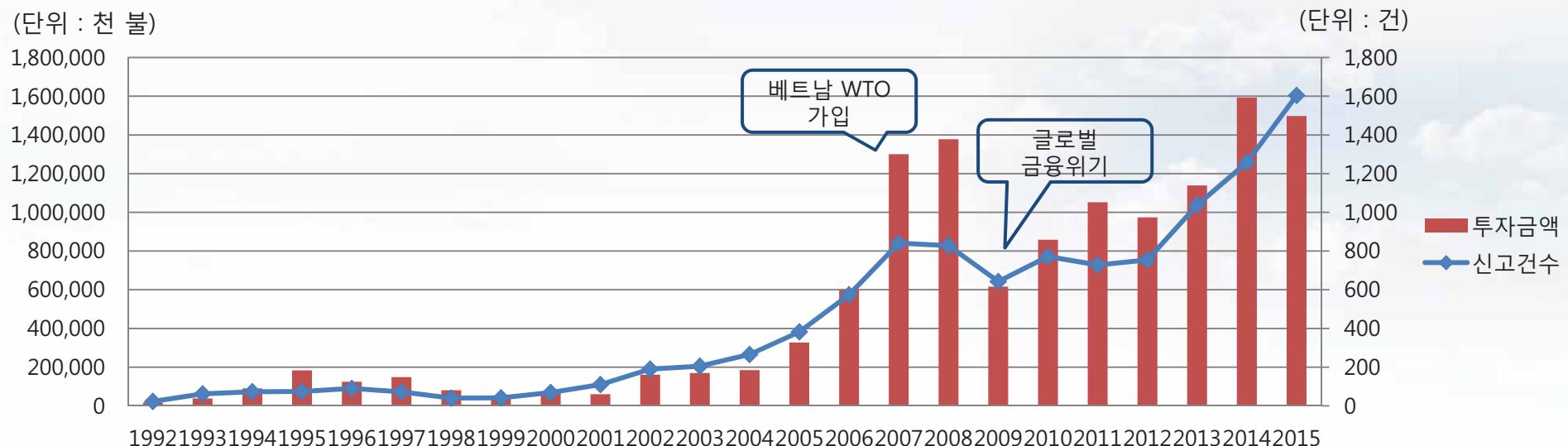
對 베트남 상위 8개 투자국 5년간 투자동향 (단위: 백만 달러, 건)

순위	국가명	2011	2012	2013	2014	2015	누계
1	한국	1,466.6 (345건)	1,178.0 (332건)	4,293.5 (488건)	7,327.5 (684건)	6,726.9 (962건)	44,900.6 (4,944건)
2	일본	2,438.4 (285건)	5,137.9 (378건)	5,747.8 (416건)	2,050.2 (436건)	1,841.7 (456건)	38,410.9 (2,883건)
3	싱가포르	2,208.2 (137건)	1,727.5 (138건)	4,376.8 (139건)	2,799.8 (147건)	1,231.3 (192건)	34,716.3 (1,526건)
4	대만	565.6 (121건)	453.0 (104건)	595.5 (118건)	1,178.0 (139건)	1,398.2 (171건)	30,693.0 (2,475건)
5	버진아일랜드	481.0 (38건)	788.3 (42건)	306.6 (25건)	524.4 (49건)	1,219.2 (81건)	19,215.9 (620건)
6	홍콩	3,093.1 (68건)	657.6 (59건)	701.9 (76건)	3,002.9 (122건)	1,196.1 (135건)	15,687.9 (972건)
7	말레이시아	453.4 (32건)	224.2 (44건)	144.3 (28건)	400.3 (46건)	2,478.2 (42건)	13,417.0 (523건)
8	미국	253.9 (52건)	125.2 (48건)	125.5 (43건)	259.8 (45건)	227.7 (74건)	10,778.9 (780건)
FDI 투자 총계		15,598 (1,191건)	16,348 (1,287건)	22,352 (1,530건)	20,230 (2,182건)	22,757 (2,827건)	279,038.7 (19,929건)

한국의 투자 현황 추이

- ◆ 한국은 '15년 누적투자액 **449억불**, **4,944건**을 투자하여
☞ 투자액과 건수 모두 대베트남 1위 투자국
- ◆ '15년 누적투자액 순위(억불) : ① **한국(449)** ② 일본(384) ③ 싱가포르(347)

연도별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추이 (단위: 백만 달러, 건)



자료원 : 한국 수출입은행 투자통계

한국의 투자현황(연도별 · 지역별)

한국의 국가별 해외투자 현황(15년 누계, 수은 통계)

순위	국가	투자금액 (백만 불)	신고건수
1	미국	63,042	25,726
2	중국	52,083	51,910
3	홍콩	17,809	5,296
4	베트남	12,711	10,736

- 베트남은 미국, 중국(홍콩 포함)에 이어 한국의 **제 3위 투자대상국**
(아세안 국가 중 최대)
- 2015년 투자규모 : 총 962건, 67.3억불 투자(베트남 투자청)
(전년대비 건수 40% 증가, 투자금액 8% 감소)
- 호치민, 하노이 및 대도시 1~2시간 거리 지역 투자 활발
 - 최근 지가 상승, 정부 시책 등으로 중부지역 투자 점차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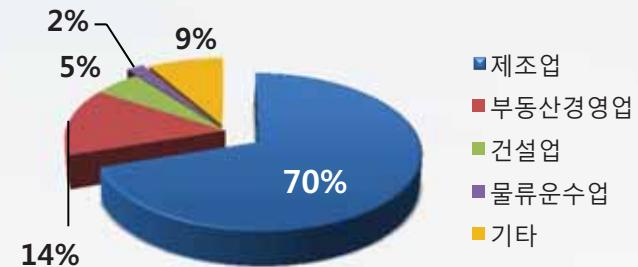
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현황

한국의 투자현황(업종별)

한국의 10대 투자 업종

(단위 : 백만 불)

#	산업	1988년 이후 누적			2015년		
		투자 건수	투자 금액	점유율 (%)	투자 건수	투자 금액	점유율 (%)
1	제조, 가공	2,977	31,426	69.7	596	5,916	87.9
2	부동산경영	91	6,475	14.4	10	119	1.7
3	건설	646	2,439	5.4	80	29	0.4
4	물류운수	82	932	2.0	13	5	0.07
5	예술 오락	25	905	2.0	1	0.4	0.01
6	호텔, 요식업	117	738	1.6	28	65	0.9
7	도소매, 유지보수	298	636	1.4	100	88	1.3
8	의료, 사회복지	25	223	0.5	3	0.7	0.01
9	기술과학전문	325	246	0.5	52	56	0.8
10	정보통신	164	189	0.4	37	62	0.9



*투자업종(누계기준)



*투자업종(15년 1~12월)

2016년 베트남 주요 이슈 및 경제전망

2016년 베트남 주요 이슈 *

2016년 베트남 경제 전망 *

2016년 베트남 투자 유치 전망 *

1

新 정부 출범

- 2016년 1월, 제 12차 공산당 전당대회를 통해 베트남 신 지도부 체제 출범
 - * 정치서열 1위인 당 서기장직 응우옌 푸 쭉(Nguyen Phu Trong) 서기 연임
 - * 주요 지도부 후보 내정자: 국가주석(現 공안부 장관), 총리(現 부총리), 국회의장(現 부의장)
⇒ 보수 성향 서기장 연임으로 세력 응집, 現 부총리 총리 내정으로 기존 경제정책 유지

2

TPP 후광효과

- 미국/일본 등 TPP 회원국으로의 수출확대, 투자환경 개선 등에 대한 기대감
⇒ TPP 비회원국보다 유리한 조건 확보 가능, FDI 지속 증가 중
 - * TPP 발효후 對 미/EU/일본 섬유 제품 수출 확대 ⇒ 2020년 300억불 규모

3

AEC 출범

- AEC(아세안 경제공동체) 출범 : 인구 6.4억 명의 거대 시장 등장
 - * 아세안 역내 국가 간 상품/인력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목표
 - ⇒ 베트남 시장 내 경쟁은 한층 과열될 것으로 전망
 - * 이미 태국, 싱가포르, 일본 기업들의 현지 유통망 M&A 진출 활발

4

한/베 FTA 발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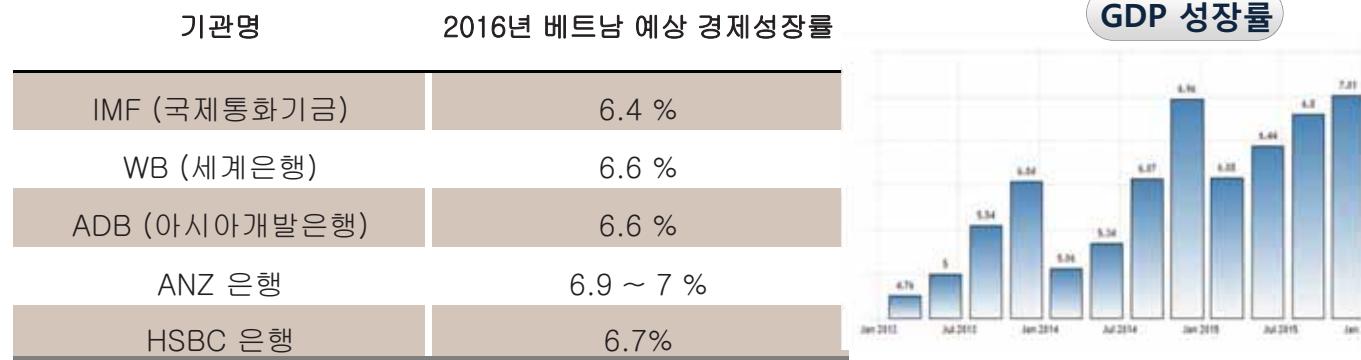
- 2016년 한-베 FTA 발효 2년차 : 투자/교역 확대
 - ⇒ (한→베) 고급 / 소형 가전, 타이어, 자동차 부품 등 관세 철폐로 시장확대 전망
 - * 수입관세: 전기밥솥(20%), 믹서기(25%) → 10년, 5년 철폐
 - ⇒ (베→한) 새우류 등 수산물, 의류 · 섬유 제품 수출 확대 전망

해외 주요기관 전망

2016년
경제성장
전망

국제 금융기관들 베트남 경제성장 기대감 높아져

- 세계은행(WB) : '15년 4월(6.2%) ⇒ 6월(6.2%) ⇒ 10월(6.3%) ⇒ 12월(6.6%)
- 국제통화기금(IMF) : '15년 5월(5.8%) ⇒ 10월(6.4%)
- 아시아 개발은행(ADB) : '15년 5월(6.2%) ⇒ 9월(6.6%) ⇒ 12월(6.6%)



소비자
신뢰지수

경기회복 기대감

- ANZ 은행/ Ray Morgan 발표

베트남 소비자 신뢰지수
아시아 국가 중 최고

소비자신뢰지수



2016년 베트남 정부의 사회-경제 발전목표

경 제

GDP 성장률	6.7%
1인당 GDP	2,450 달러
CPI(소비자물가지수) 증가율	5% 미만
총 수출액 증가율	10%
무역적자(수출액 대비 수입액 초과비율)	5% 미만
재정적자 비율	GDP의 4.95%
GDP 내 공업 및 서비스 비중	85% 이상

사 회

직업훈련을 받은 노동자 비율	53%
의료보험 가입 인구비율	76%
다차원 빈곤지수	1.3~1.5% 감소
도시지역 실업률	4% 미만

환경

도시지역 정수사용 인구 비율	83.5%
집중 폐수처리 시스템이 가동되는 수출가공지구 비율	85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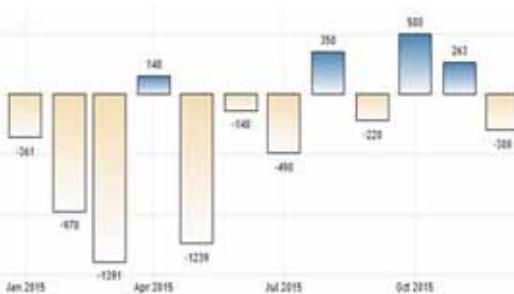
2016년 베트남 경제 전망

2015년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

예상경제지표

기호	설명	01/15	02/15	03/15	04/15
GDP 성장률	6.68	6.3	6.5	6.8	6.7
실업률	2.31	2.23	2.1	2.06	2.02
인플레이션	0.60	1	1.1	0.9	1.51
금리	6.50	6.5	6.5	6.5	6.5
무역수지	-300.00	-150	-101	-41.46	-35.3
GDP 대비 정부 부채	50.50	54.32	54.57	54.6	54.58

대외무역



환율



2016년 베트남 경제 주요 전망

대외 교역

- 중장기적 무역적자 상태 지속
 - *세계경제 불황으로 인한 수요감소, 국제 원부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액 감소
 - *부품·소재 산업 취약, 원부자재 수입의존도 높아

물가

- 2016년 저유가기조 물가상승 낮은 수준
 - * 저유가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인하
 - 공공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소폭 상승
- * 교육, 의료, 전기세 인상 예고, 3%대 상승 전망

환율

- 중앙은행 환율 안정화 노력 한계에 다달아
 - * 미국 금리인상, 중국 성장세 둔화, 동화 평가절하에 대한 시장 기대심리 등 대내외 압박 요인 요인
 - * 전문가들은 '16년 중 3~5% 수준의 환율조정(평가절하)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
- 2016년 1월 4일부, 베트남 중앙은행 일일 기준환율 고시
 - * 기준에는 은행 간 외환거래 평균 환율만 고시(국제수지 및 정부 통화정책을 고려한 대응 차원 조치)

2016년 3대 세계 경제 키워드, 베트남 경제에 어떤 영향?



미국 FED 금리인상

- 1 기준금리 인상, 외국인 투자자 이탈과 외환시장 불안정 문제
- 2 해외 단기 외화 부채 크지 않아 거시적 경제 충격은 적을 듯
- 3 환율관리 어려움 대두, 연 중 1~2차례 평가절하 예상
- 4 해외직접투자(FDI)는 상승추세 지속. 베트남 경제의 모멘텀

중국의 성장둔화

- 1 중국 경제 성장 악화는 베트남 對 중국 수출에 직격탄 (농산물, 광물)
- 2 중국 내수시장 악화로 인해 중국산 제품 베트남 대거 유입
- 3 장기적 베트남의 對 중국 무역 적자폭 확대. 국가재정 부담
- 4 수출 중국의존도 탈피, 다변화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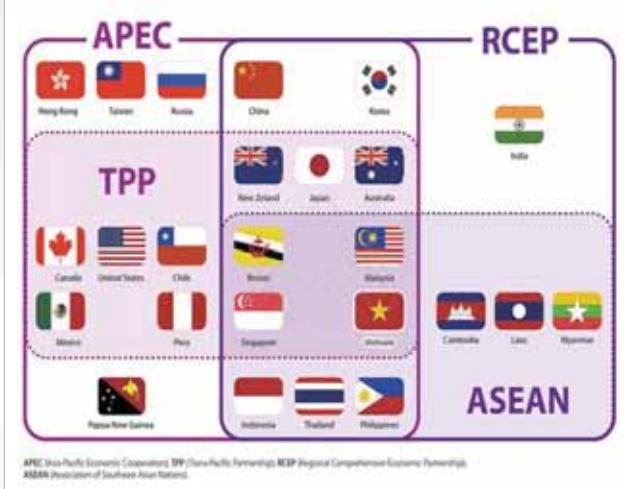
세계 저유가 기조

- 1 유가 하락으로 원유수출 타격, 재정에 악영향(재정수입 6~7%)
- 2 저유가 및 원부자재 하락은 현지 제조기업 생산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와 경쟁력 향상
- 3 장기적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 및 소비 촉진 기회 등 긍정적 요소 활용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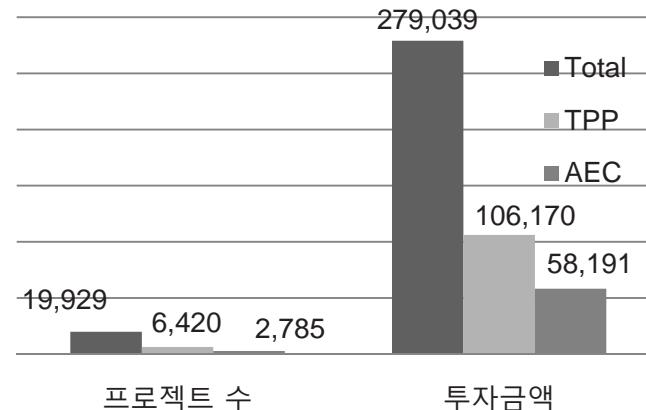
외부요인

글로벌 생산/수출 거점으로 발돋움

통상 확대



TPP/AEC 회원국 베트남 투자



체결완료

ASEAN 협정 포함
10개국 FTA 체결

협상타결

베-EU FTA,
TPP

협상 중

RCEP
기타 3건 FTA

TPP · AEC 회원국 중심 對 베트남 투자 증가할 것

- 對 미·EU·일 수출위한 생산거점 부각, AEC 회원국 서비스 분야 투자 진출 자유화
- ‘15년 말 누계 기준 TPP+AEC 체결국의 대 베트남 투자는 전체 FDI의 약 59% 차지
-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(M&A) 개방, 자유로운 자본 투자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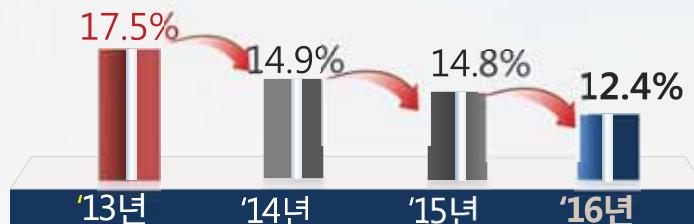
2016년 베트남 투자 유치 전망

내부요인

■ 경제 및 물가 안정화로 향후 임금상승 수준 하향 전망 (노동자 교육수준 향상)

연도별 최저임금 평균상승률 추이

(베트남 노동부)



• 베트남은 아직 노동집약적 산업에 강점
(*최근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이동 중)

풍부한 노동력, 높은 노동 품질

(베트남 노동부'15)



*노동가능인구
5,400만명(15.10월)

*교육수준
취업자 중 고등학교 이상
졸업자 비율(30.1%)

	베트남	인도네시아	중국	캄보디아	미얀마	필리핀
1인당 GDP(2014년)	2,053	3,534	7,589	1,081	1,221	2,865
국가 경쟁력 순위	56(68)	37(34)	28(28)	90(95)	131(134)	47(52)
2016년 최저임금(\$US)	155.33	221.17	262	140	84.37	190.19
전년대비 증감률	(12.4%↑)	(14.8%↑)	(10.3%↑)	(9.4%↑)		(12.5%↑)
2015 최저임금(\$US)	137	186	253.25	128	-	179.86
임금대비 생산성 순위	23(45)	33(30)	20(15)	57(39)	73(79)	19(27)
고용과 해고	44(65)	34(32)	17(15)	22(13)	69(51)	74(104)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도 순위

자료원 : WEF(World Economic Forum),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5-16, 베트남 노동부

한-베 무역협정 체결 동향 및 목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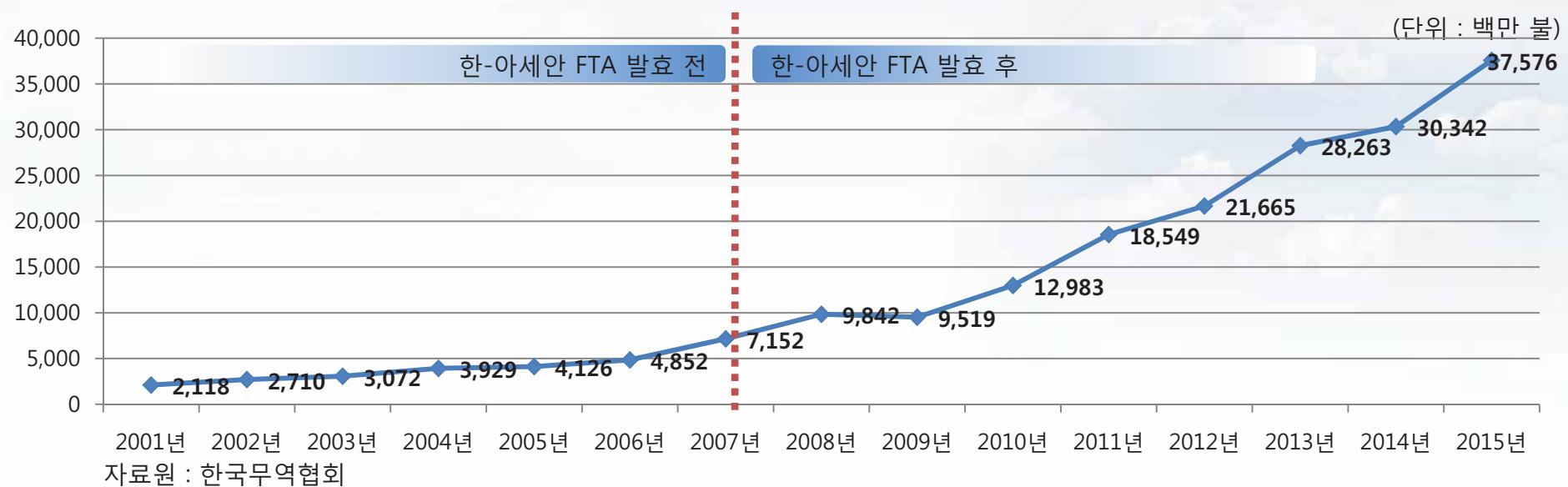
한-ASEAN FTA(AKFTA) *

한-베트남 FTA(VKFTA) *

한-베 경제협력 목표 *

- ◆ '04년 11월 FTA 협상 개시 후, 17차례의 협상 끝에 타결
 - '07년 6월 상품협정 발효, '09년 5월 서비스협정 발효, '09년 9월 투자협정 발효
- ◆ AKFTA 이후, 한국과 베트남은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, 경제성장 도약대로 자리매김

한-아세안 FTA 발효 전후 베트남과의 교역규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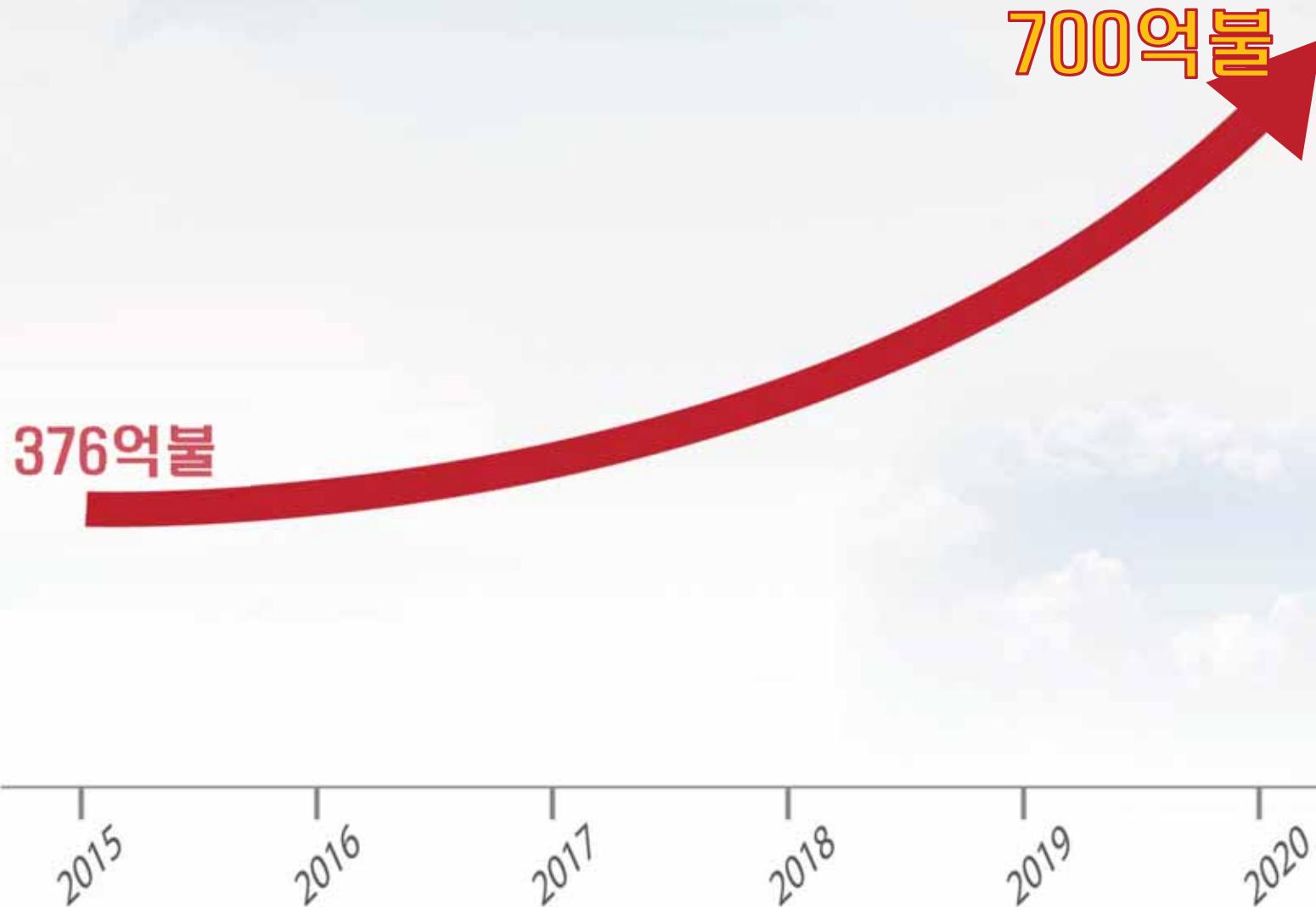
- ◆ '12.9월 협상 개시 이후, 2년 4개월만에 최종 타결('14.12월)
- ◆ 양국은 양측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하고, 투자/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신속히 발효('15.12월)
- ◆ 한-아세안 FTA 보다 **상품자유화 수준 제고, 무역 촉진적인 규범 도입**

한-베트남 FTA 자유화율

	관세 철폐 품목 수	전체 품목 기준 (%)	전체 수입액 기준(%)
한국	11,679	95,44	97,22
베트남	8,521	89,15	92,72

자료원 : VIETRADE

◆ 2020년까지 한-베트남 교역규모 700억불 목표 달성



감사합니다.